

도시공원 내 텃밭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공원 공공성 인식 연구†

남궁희* · 김슬예** · 강은지** · 김용근***

†(주)지역활성화센터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Public Park Awareness along with Community Garden Cultivation Participation within an Urban Park

Nam Koong, Hee* · Kim, Seul-yea** · Kang, Eun-Jee** · Kim, Yong-Geun***

*Culture & Community Co., Ltd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at understanding recognition of the park's community garden, public evaluation of it, and user awareness of the public enhancement plan. This was based on the problem that arose in the park community garden as public awareness research along with community garden cultivation participation within the urban park. In order to compare recognition differences along with community garden cultivation participation, the researcher conducted an analysis by dividing research participants into a cultivation participant group and non-participant group. As a result first, the cultivation participant group positively recognized the necessity of the community garden compared to the non-participant group. However, they recognized the community garden as a space for private profit, which threatened the public aspect of the park. Second, as a result of evaluating community garden publicness, the non-participant group which was alienated from community garden use, had a negative opinion about the community garden. Third, as a result of researching awareness of the community garden distribution method and consumption to promote publicness of the community garden, the cultivation participant group recognized the community garden as a space for private profi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both groups to be aware of the public value of the community garden among the park users for sustainable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he direction in the aspect of users to form, manage and operate the community garden in the urban park without damaging publicness of the park or conflicting between the function of the park and the function of the community garden. Henceforth, the researcher expects that this research can be utilized to maintain publicness of the park in respect of formation of the community garden in the park and management and operation.

Key Words: City Agriculture, Promoting Publicness, Community Garden, Park management, Differences in Awareness

†: 본 연구는 201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Yong-Geun Ki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Korea, Tel.: +82-2-2210-2644, E-mail: ygkim@uos.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도시공원 내 텃밭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공원 공공성 인식 연구로 공원 내 텃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공원 내 텃밭에 관한 인식과 공원 내 텃밭 공공성 평가, 공원 내 텃밭 공공성 증진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텃밭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경작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경작 참여 집단은 비참여 집단에 비해 공원 내 텃밭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공원 내 텃밭을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어 공원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었다. 둘째, 공원 내 텃밭 공공성을 평가한 결과, 경작 비참여 집단이 참여 집단에 비해 도시공원 내 텃밭의 공공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공원 내 텃밭 공공성 증진을 위한 텃밭 분양 방법 및 소비 방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경작 참여 집단은 텃밭을 공공의 가치로 인식하기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해서 두 집단 모두 공원 이용자 사이에 텃밭의 공공적 가치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원의 기능과 텃밭의 기능이 상충되지 않고 도시공원 내 텃밭이 공원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 및 관리·운영되기 위한 이용자 측면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원 내 텃밭이 조성되고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원의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도시농업, 공공성 증진, 공원 내 텃밭, 공원 관리, 이용자 인식 차이

1. 서론

도시민의 소득 및 문화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시간 증가,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됨에 따라 시민들은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여가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 증진 및 정서함양, 환경개선 등(Kim, 2013)에 기여하는 새로운 여가활동으로써 도시농업을 주목하고 있다.

도시 내 농업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건강증진, 환경교육, 공동체 회복 등(Lee, 2012) 사회적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으나 도심 내 경작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적절한 경작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중 하나로 2013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시농업공원이 조성됨은 물론 기존 도시공원 내에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공원 내 텃밭 도입은 부족한 경작 공간을 확보할 뿐 아니라 텃밭이 시가지 내부나 인접지역에 위치하므로 텃밭을 이용하는 도시민의 접근이 유리하다는 점, 일반 주말 농장보다 이용 금액이 저렴하다는 등의 장점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원 내 텃밭이 한정된 인원에게만 분양되면서 공공재원으로 조성되고 관리·운영되는 공원이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공간으로 변모하는 것에 대한 공공재의 사유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실제 공원이 텃밭이 아닌 자연학습장으로 운영될 때에는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생식물, 원

예식물, 농작물 등의 재배와 수확을 체험할 수 있었지만 텃밭으로 변경되면서 체험기회가 제한되었다(http://www.segye.com). 또한 부산 APEC 나루공원의 경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원 내 농사 활동에 대한 거부감과 특징인만 참여한다는 민원 제기로 1년도 안되어 텃밭을 철거하게 되는 등 부정적인 인식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은 사적 공간이 아닌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공원 내 어는 시설도 특징인이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대로 어떤 특징인을 구조적으로 배제해서는 안되며, 모두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된 공간이어야 한다(Jang, 2005). 하지만 현재 도시공원 내 텃밭은 공공적 가치가 공유되지 못한 채 개인의 여가 및 먹거리 생산 수단으로써 인식되고 있으며, 일부 경작자들만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되면서 모든 계층이 평등하게 이용해야 하는 도시공원이 텃밭으로 인해 공공재의 성격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공원 내 텃밭의 조성 및 운영에 있어 나타나는 공공성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먼저 도시공원 내 텃밭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여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공원 내 텃밭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원의 기능과 텃밭의 기능이 상충되지 않고, 도시공원 내 텃밭이 공원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 및 관리·운영되기 위한 이용자 측면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도시공원의 역할과 공공성에 대한 이해

도시공원은 자연 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 모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은 여가 휴양의 위락적 기능, 환경 보전의 환경·생태적 기능, 방재 예방의 보호적 기능 등의 측면에서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기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003). 최근 도시민의 경제 및 문화 생활 수준 향상으로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도시공원은 기존의 산책 및 휴식과 같은 도심 내 단순한 녹지로서의 기능을 넘어 도시의 경관을 증진시키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의 장 형성 등(Park, 2012) 시민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은 사적 공간이 아닌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양한 매력을 갖추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야 한다. 하지만 테니스장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위해 도입된 시설이 점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면서 공원의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공간을 둘러싼 개인의 이해와 공공의 요구에 대한 갈등에서 생기는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고 다수의 가치가 공유되기 위해서는 조정과 타협이 필요한 실정이다. Lee(2003)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공원에서는 민관협력, 시민 참여를 강조하면서 공원 조성에서부터 관리까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Kim, 2006). 또한 Lee(2009)는 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이 다른 이용자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원이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임을 이해하는 이용자 인식 제고 및 공원 계획·관리 측면에서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에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며 이에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활동을 고려한 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을 통해 도시공원이 공공성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도시공원 내 텃밭에 대한 이해

도시농업은 도시 또는 인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으로 도시에서의 먹거리 생산, 도시 환경 개선, 여가 활동 및 커

뮤니티 형성과 같은 경제적·생태적·사회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0). 2006년 텃밭상자를 시작으로 대두되어진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부 및 일반 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도시농업의 급격한 양적 증대로 인하여 도심 내 경작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Seoul Research Institute(2012)의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도 서울시의 도시농업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경작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도시농업의 유형은 주택활용형, 근린생활형, 도심형, 농장형, 공원형,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으로 구분되어지는데(Act on Development and Support of Urban Agriculture, 2011), 그 중 공원형 도시농업의 일부인 도시공원 내 텃밭은 시가지 내부나 인접지역에 위치하므로 텃밭을 이용하는 도시민의 접근이 유리하다는 점, 텃밭을 통해 공원에서의 사회적 교류 또는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장점으로 경작 공간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Kang *et al.*(2007)은 도시공원 범위에 나타난 공원녹지 유형별 텃밭을 설치할 수 있는 난이도를 검토하여 도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린공원 내 텃밭 조성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을 밝혔으며, Lee *et al.*(2011)은 도시농업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지 발굴에서 기존공원의 이용, 도시농업공원의 조성, 미조성 공원 부지 활용을 제시하였다. 이에 2013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의 한 형태인 주제공원으로써 도시농업공원이 조성되었고, 기존 도시공원에서의 도시농업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도시공원 내 텃밭을 도입하는 경우, 도시공원이 공공에게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경작행위에 대한 허용범위와 공원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An, 2013). Land & Housing Institute(2011)에서는 공원녹지에 텃밭을 도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공공성을 언급하면서 공원녹지는 공공재이므로 일부공간을 특정집단 또는 특정인에게만 허용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공공성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공원에 도시농업을 도입할 시 공재 성격에 부합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Son(2014) 또한 텃밭공원은 공원 이용자와 텃밭을 분양받은 텃밭경작자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므로, 공공 서비스로서의 공원의 기능과 도시농업의 장소로서의 텃밭 기능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공원 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상 기존의 선행되어진 연구는 도시공원 내 텃밭이 도입됨에 따른 공공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필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도시공원 내 텃밭이 도입된 이후의 공공성 평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원 내 텃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텃밭 조성에 대한 인식과 공원 내 텃밭 공공성 평가를 통해 도시공원 내 텃밭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공원의 기능과 텃밭의 기능이 상충되지 않고 도시공원 내 텃밭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텃밭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공간의 공공성은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공원 내 텃밭의 공공성에 대하여 텃밭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공원 내 텃밭 경작 참여 여부'에 따라 종속변수인 '공원 이용 현황', '공원 내 텃밭 인식', '공원 내 텃밭 공공성 평가', '공원 내 텃밭 공공성 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원 내 텃밭이 사회 구성원 간 합의를 이루고 사회적 가치로써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Figure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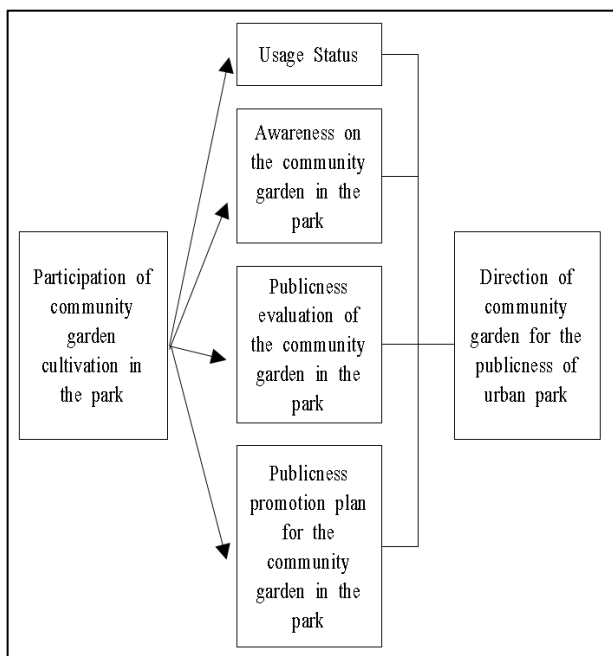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텃밭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공원 공공성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첫 번째로 공원 이용자 특성과 이용 현황을 알아보기로 인구조계학적 특성과 이용 빈도를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는 공원 내 텃밭이 조성됨에 따른 집단 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자 Lee(2010)와 Yoon(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원 내 텃밭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이에 공원 내 텃밭 조성의 필요성을 등간 리커드 척도로, 텃밭 조성에 따른 영향 인식과 텃밭 소유 주체를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는 공원 내 텃밭 공공성 평가를 통해 현재 공원 내 텃밭의 공공성 실태를 파악하고 공원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선할 요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공원과 관련하여 공공성을 평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건축·도시공간에서 공공성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 중 Jang(2005)과 Eun(2013)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공공성을 분석한 틀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공공성을 5점 리커드 척도로 평가하였다. 공간의 공공성 회복은 무엇보다 시민의 자발적 활동이 중요하므로 이용 주체, 이용 프로그램이 고려되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공원 내 텃밭 공공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세부 항목은 심미성, 이용성, 상호교류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텃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텃밭 운영·관리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Lee(2012), Kim(2014)의 텃밭 운영·

Table 1. Survey configuration and measuring method

Classification	Contents	Measuring method
Usage status	Use frequency	Nominal scale
Awareness on the community garden in the park	Necessity of community garden formation	Interval scale of 5
	Awareness on influence along with community garden formation	Nominal scale
	Main agent of community garden ownership	
Publicness evaluation of the community garden in the park	Esthetics	Interval scale of 5
	Availability	
	Interchange	
Publicness promotion plan for the community garden in the park	Community garden distribution method	Nominal scale
	Production consumption method	
	Essential items for sustainable management	
Demographics	Gender, age, occupation	Nominal scale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텃밭 분양 방법과 생산물 소비 방법,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목적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참조).

3.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도시공원 내 텃밭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공원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도시공원 내 텃밭이 조성된 공원을 방문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대상지는 서울시에서 2012년 조성된 텃밭으로 한정하였으며 도시농업공원인 노들섬 노들텃밭, 갈현근린공원 내 갈현텃밭, 초안산 근린공원의 나눔텃밭 그리고 용산가족공원의 친환경텃밭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공원 내 텃밭을 분양받은 경작 참여자와 공원 내 텃밭 경작에 참여하지 않는 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비확률 표본추출법의 하나인 편의표본추출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는 각 공원 담당자와 상의하여 텃밭 참여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말에 시행하였으며 총 247명의 설문을 회수한 결과, 불성실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하고 총 229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2 참조).

최종 유효 표본은 코딩(Coding) 과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통계처리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19를 사용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공원 내 이용 빈도와 텃밭 조성에 따른 영향 인식, 텃밭 공공성 증진 방안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와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문항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독립성과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텃밭 공공성 평가를 위한 각 변수들의 정확

Table 2. Survey details and schedule

Classification	Details
Data collection method	Self-administered user survey through 1:1 interview
Survey desti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Nodeulseon nodeul community garden Galhyun neighborhood park galhyun community garden Choansan neighborhood park nanum community garden Yongsan family park eco-community garden
Survey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cultivating participants who own to community garden General users of a park
Sampling method	Convenience method
Number of valid samples	229 copies
Survey period	October 12 (Sat), 13 (Sun), 2013

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공원 내 텃밭 조성 필요성과 텃밭의 공공성 평가에 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독립표본 t -test를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고찰

1.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응답자의 표본은 총 229명으로 남성 45.0%(103명), 여성 55.0%(126명)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연령대는 30대(53명, 23.1%), 60대 이상(52명, 22.7%), 20대(42명, 18.3%), 40대(37명, 16.2%), 50대(34명, 14.8%), 10대(11명, 4.8%)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대상지 4곳 모두 사회취약계층인 60~65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분양 방법의 결과로 보여진다. 설문 응답자의 직업군으로는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이 많은 주부의 비율이 20.5%(47명)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39명, 17%), 전문직(36명, 15.7%), 공무원(24명, 10.5%), 무직(24명, 10.5%), 자영업(23명,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2) 공원 이용 빈도

본 연구는 도시공원 내 텃밭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공원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 응답자를 텃밭 참여 집단

Table 3.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Contents	Frequency(%)
Gender	Male	103(45.0)
	Female	126(55.0)
Age	10s	11(4.8)
	20s	42(18.3)
	30s	53(23.1)
	40s	37(16.2)
	50s	34(14.8)
	60s or older	52(22.7)
Occupation	Independent business	23(10.0)
	Professional jobs	36(15.7)
	Public official	24(10.5)
	Student	39(17.0)
	Housewives	47(20.5)
	Administrative & technical	15(6.6)
	Inoccupation	24(10.5)
	Other	21(9.2)

Table 4. Usage status along with cultivation participation

Classification	Participant	Non-participant	Total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Almost daily	23(20.4)	13(11.2)	36(15.7)
2~3 times a week	38(33.6)	15(12.9)	53(23.2)
Once a week	35(31.0)	14(12.1)	49(21.4)
2~3 times a month	13(11.5)	9(7.8)	22(9.6)
Once a month	4(3.5)	16(13.8)	20(8.7)
First time	0(0.0)	49(42.2)	49(21.4)
Total	113(100.0)	116(100.0)	229(100.0)
Chi-square test	Value	df	Sig.
Pearson chi-square	78.660	5	0.000

(113명, 49.3%)과 비참여 집단(116명, 50.7%)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집단 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공원 이용 빈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나타났다. 공원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주 2~3회가 23.2%(5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 1회와 처음 이용함이 각각 21.4%(49명)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경작 참여 집단이 주 2~3회(38명, 33.6%), 주 1회(35명, 31.0%), 거의 매일(23명, 20.4%)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참여 집단은 처음 이용함(49명, 42.2%), 월 1회 정도(16명, 13.8%), 주 2~3회(15명, 12.9%)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공원 이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경작 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보다 공원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텃밭이 경작자의 꾸준한 관리를 필요하므로 텃밭 경작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공원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공원을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를 제외하고 집단 간 공원 이용 빈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공원이 모든 이용자에게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Table 4 참조).

2. 공원 내 텃밭에 관한 인식

1) 공원 내 텃밭 조성 필요성

텃밭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공원 내 텃밭 조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경작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으로 구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나타났다.

공원 내 텃밭 조성 필요성에 대해 경작 참여 집단은 5점 만점에 평균 4.57로 높은 필요성을 나타냈지만, 비참여 집단의 경우 평균 3.40으로 전체 평균 3.50에 미치지 못하여 공원 내 텃밭 조성에 대하여 경작 비참여 집단이 참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2012)은 공간적인 접근성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먼 관계에 놓인 사람

Table 5. Necessity of community garden formation along with cultivation participation

Classification	Mean		<i>t</i> -test for the identity of average	
	Participant	Non-participant		
Necessity of community garden formation	4.57	3.40	10.123	0.000**

** $p<0.05$

들은 오히려 더 큰 거리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는데, 비참여 집단에게 텃밭은 공간적인 접근은 용이하지만 사회적인 거리감을 주고 있어 비참여 집단이 실질적으로 경작에 참여하는 참여 집단에 비해 텃밭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작 참여자뿐 아니라 경작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자들도 공원 내 텃밭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단순한 경관 감상 이외의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Table 5 참조).

2) 공원 내 텃밭 조성에 따른 영향 인식

도시공원 내 텃밭 조성에 따른 이용자 인식을 알아보고자 텃밭 조성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조사하였다. 경작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집단 간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공원 내 텃밭 조성의 긍정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작 참여 집단은 거주지에서의 텃밭 접근성 유리가 36.4%(41명), 육체·정신적 건강 유지 도움이 26.5%(30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참여 집단은 자녀 자연체험 학습기회 제공이 28.5%(33명), 도시공원의 생태적 기능 강화가 17.2%(20명)로 나타났다. 경작 참여 집단의 경우 기존 선행되어진 연구(Kang, 2013; Son, 2014)와 같이 공원 내 텃밭의 가치를 편리한 접근성과 건강 증진 효과 등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인식하여 공원 내 텃밭을 사회적 교류를 위한 도시공원이라기보다는 농업 활동을 하는 시민 농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비참여 집단의 경우 자연 학습 기회와 생태적 환경 개선 등 사회적·생태적인 가치로써 공원 내 텃밭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Heo and Kim(2012)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시농업공원 조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도시농업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가족 단위이며 자녀를 둔 부모들이수록 체험과 같은 교육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경작 참여 집단의 경우, 이웃과의 교류 증대가 5.3%(6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공원 내 텃밭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재 공원에서의 도시농업은 경

작 참여자들에게 개인의 생산과 여가활용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 텃밭의 사회적 역할 및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웃과의 교류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텃밭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공원 내 텃밭 조성의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작 참여 집단의 경우 비료·농약으로 인한 공원 오염이 26.6%(3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21.2%(24명), 농작물의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19.5%(22명)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 집단이 주로 개인의 텃밭 경작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작 비참여 집단의 경우, 공원의 사유화가 41.4%(4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공원 내 텃밭이 조성됨으로 공공의 공간이 개인에게 사유화 되는 것 외에 따른 공원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im(2008)은 공적인 장소가 사적인 장소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이미 공공영역의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경작 비참여 집단 역시 현재 개인적으로 점유되어진 공원 내 텃밭의 공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공원 내 텃밭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닌 사회 교류의 장으로써 공공성이 확보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재로서 공원의 역할과 텃밭의 사회적·생태적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 바람직한 공원 내 텃밭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able 6 참조).

3) 공원 내 텃밭 소유 주체

일반적으로 공원은 공공재로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현재 공원 내 텃밭은 개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분양됨으로 공원의 사유화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이용자들도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텃밭 소유 주체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하였다.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공원 내 텃밭 소유 주체에 대해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집단 간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작 참여 집단의 경우, 76.1%(86명)가 공원 내 텃밭의 소유 주체는 모든 공원 방문자라고 응답하였으며, 경작 비참여 집단의 경우 56%(65명)가 이와 같이 응답하였다. 하지만 경작 비참여 집단의 경우, 텃밭을 분양받은 개인의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44%(51명)로 참여 집단의 23.9%(27명)보다 높게 나타

Table 7. Main agent of community garden ownership along with cultivation participation

Classification	Participant	Non-participant	Total
	Frequency(%)	Frequency(%)	Frequency(%)
Community garden distribution individual	27(23.9)	51(44.0)	78(34.1)
All park visitors	86(76.1)	65(56.0)	151(65.9)
Total	113(100.0)	116(100.0)	229(100.0)
Chi-square test	Value	df	Sig.
Pearson chi-square	10,268	1	0,001

Table 6. Awareness on influence along with community garden formation

Classification	Participant	Non-participants	Total	Chi-square test			
	Frequency(%)	Frequency(%)	Frequency(%)	Value	df	Sig.	
Positive impact	Advantageousness of accessibility to community garden from residence	41(36.4)	13(11.2)	54(23.6)	34.837	6	0.000
	Participation in practical park from appreciation	6(5.3)	12(10.3)	18(7.9)			
	Increase of exchange with neighbors	6(5.3)	11(9.5)	17(7.4)			
	Provision of nature experience learning opportunity for children	18(15.9)	33(28.5)	51(22.3)			
	Helpful to maintain physical·mental health	30(26.5)	19(16.4)	49(21.4)			
	Enhancement of ecological function of city park	12(10.6)	20(17.2)	32(14.0)			
	Other	0(0.0)	8(6.9)	8(3.4)			
Total	113(100.0)	116(100.0)	229(100.0)				
Negative impact	Privatization of park	19(16.8)	48(41.4)	67(29.3)	44.466	6	0.000
	Damage of park landscape	12(10.6)	20(17.2)	32(14.0)			
	Pollution of park due to fertilizer·agricultural pesticides	30(26.6)	30(25.9)	60(23.2)			
	Decrease of park green area ratio	4(3.5)	8(6.8)	12(5.2)			
	Crop safety	22(19.5)	9(7.8)	31(13.5)			
	None	24(21.2)	1(0.9)	25(10.9)			
	Other	2(1.8)	0(0.0)	2(0.9)			
Total	113(100.0)	116(100.0)	229(100.0)				

난 것으로 보아, 경작 비참여 집단에게 공원 내 텃밭은 공공의 목적이기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공원 공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원 내 텃밭이 특징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경작에 참여하지 않는 공원 이용자도 함께 참여하며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텃밭 내 콘서트 개최, 나눔 축제 등 공원 이용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7 참조).

3. 공원 내 텃밭 공공성 평가

1) 공원 내 텃밭 공공성 평가

본 연구는 도시공원 내 텃밭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현재 텃밭의 공공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이용 주체, 이용 프로그램과 같이 이용자가 고려되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도시공원 내 텃밭의 공공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에 세부 항목으로 조경 및 디자인 관련 요소로써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미성, 이용자의 행태를 유발하는 이용성과 이용자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행태를 유발하는 상호작용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항목의 신뢰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 각 항목의 Cronbach의 알파값이 0.840로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신뢰 수준이 검증되었다.

먼저 공원 내 텃밭 공공성에 대한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Table 8. Publicness evaluation of the community garden in the park

Classific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Total mean	Cronbach α
Esthetics	Harmony between community garden arrangement and design with environment	3.63	0.883	3.59	0.840
	Excellent landscape due to various crop cultivation	3.55	0.949		
Availability	Public space, not private ownership of a certain group	3.64	1.000	3.44	
	Space design considering unspecific majority	3.00	0.959		
	Availability of various people of all ages	3.84	0.934		
	Operation of public program where unspecific majority can participate	3.26	0.890		
Inter change	Sharing of harvest with the neighborhood	3.30	0.895	3.35	
	Fellowship gets higher due to the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3.40	0.876		

3.46으로 평균 3.50보다 낮게 평가되어, 이용자의 공원 내 텃밭에 대한 공공성 인식이 낮다고 판단된다. 각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심미성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이용성(3.44), 상호교류(3.35) 순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항목으로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용가능'이 3.84로 항목 중 높게 나타났으며, '불특정 다수를 고려한 공간 설계가 되어 있음', '불특정 다수가 참여 가능한 공공 프로그램 운영', '수확물을 주변이웃과 나눔', '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 유대감이 높아짐'의 4가지 항목은 평균 이하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현재 공원 내 텃밭이 경작자의 개인 경작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개인과 공동체, 도시 간 사회적 교환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8 참조).

2) 공원 내 텃밭 공공성 평가에 관한 이용자 인식 차이

공원 내 텃밭의 공공성 평가 분석을 위해 경작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으로 구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총 8개의 항목 모두 집단 간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경작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 간 공공성에 관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심미성'에 대한 평가는 텃밭 배치 및 디자인, 경관성으로 구성하였다.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텃밭 배치 및 디자인 주변 환경과 조화로움', '다양한 작물재배로 경관성이 뛰어남' 2가지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경작 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보다 텃밭의 심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비참여 집단의 경우 기존 도시공원 경관에 비해 정돈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텃밭의 경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작 참여자들이 공원 경관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텃밭의 경관을 공원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성'은 공적 공간 인식, 공간 설계,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성, 공공 프로그램 운영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4가지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성 항목 중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용 가능'에서는 경작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이 각각 4.12, 3.57로 집단 간 평균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특정 집단의 사적 소유가 아닌 공적 공간' 역시 경작 참여 집단은 3.81, 비참여 집단은 3.46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텃밭 소유 주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같이 경작 참여 집단은 텃밭을 모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비참여 집단은 공원 내 텃밭 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제한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

가 참여 가능한 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경작 비참여 집단은 3.04로 참여 집단의 3.48보다 낮게 평가하여 현재 텃밭 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원 이용자 모두를 고려한 다양한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공원 내 텃밭 경작 참여자와 비참여자가 함께 어우러져 공원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블록정 다수를 고려한 공간 설계'에 대한 항목은 경작 참여 집단이 3.13, 비참여 집단은 2.87로 이용성 부분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현재 공원 내 텃밭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채 조성되어 보편적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다양한 계층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호교류'에 대한 평가는 수확물 나눔과 소통을 통한 유대감 증진으로 구성되어 평가하였으며 2가지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수확물을 주변 이웃과 나눔'에 대하여 경작 참여 집단이 3.63, 비참여 집단이 2.97로 집단 간 평균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경작 비참여 집단의 경우 나눔의 범주를 불우 이웃 돕기와 같은 사회적 나눔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참여 집단의 경우 사회적 나눔 뿐 아니라 주변 경작자와 수확물을 교환하는 활동도 소규모

나눔 활동으로 인식하였기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 유대감이 높아짐'에 대하여 경작 참여 집단은 3.57, 비참여 집단은 3.22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작자가 잡초 제거, 물주기 등 단시간 내 개인 텃밭 관리의 목적으로 도시농업을 하기에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교류 활동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Park(2012)은 도시텃밭 운영 프로그램이 참여자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텃밭 프로그램 운영이 참여자의 상호교제와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공원 내 텃밭을 중심으로 경작 참여자 간 소모임 등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수확물 나눔 축제 등 공원 이용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텃밭이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넘어 텃밭 참여자와 공원 이용자가 서로 소통하는 상호교류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운영·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able 9 참조).

4. 공원 내 텃밭 공공성 증진 방안에 관한 인식

1) 텃밭 분양 방법

도시공원 내 텃밭 공공성 증진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텃밭 분양 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확률 0.05의 수준에서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텃밭 분양 방법에 대해 경작 참여 집단의 경우, 개인에게 분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33.6%(38명)로 공원 내 텃밭을 개인 여가의 수단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인과 공동체에 분양해야 한다는 응답도 22.1%(25명)로 높게 나타나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작 비참여 집단의 경우, 텃밭을 어린이 동반가족에게 분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31.0%(3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Table 9. Difference of user awareness on publicness evaluation of the community garden in the park

Classification		Mean		t-test for the identity of average	
		Participant	Non-participant		
Esthetics	Harmony between community garden arrangement and design with environment	3.88	3.37	4.596	0.000**
	Excellent landscape due to various crop cultivation	3.87	3.23	5.314	0.000**
Availability	Public space, not private ownership of a certain group	3.81	3.46	2.659	0.008**
	Space design considering unspecific majority	3.13	2.87	2.101	0.037**
	Availability of various people of all ages	4.12	3.57	4.547	0.000**
	Operation of public program where unspecific majority can participate	3.48	3.04	3.755	0.000**
Inter change	Sharing of harvest with the neighborhood	3.63	2.97	5.889	0.000**
	Fellowship gets higher due to the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3.57	3.22	2.990	0.003**

** p<0.05

Table 10. Community garden distribution method along with cultivation participation

Classification	Participant	Non-participant	Total
	Frequency(%)	Frequency(%)	Frequency(%)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22(19.5)	25(21.6)	47(20.5)
Individual	38(33.6)	26(22.4)	64(27.9)
Family with children	15(13.3)	36(31.0)	51(22.3)
Community distribution	12(10.6)	10(8.6)	22(9.7)
Individual and community	25(22.1)	19(16.4)	44(19.2)
Other	1(0.9)	0(0.0)	1(0.4)
Total	113(100.0)	116(100.0)	229(100.0)
Chi-square test	Value	df	Sig.
Pearson chi-square	13.051	5	0.023

는 앞서 비참여 집단이 공원 내 텃밭 조성의 긍정적인 영향을 자연 학습의 기회로 인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개인과 사회취약계층에게 분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22.4%(26명), 21.6%(25명)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경작 비참여 집단은 공원 내 텃밭을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공공에게 이익을 주는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집단 간 텃밭 분양 방법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공원 이용자의 공원 내 텃밭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원 내 텃밭의 방향 가치에 맞는 분양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0 참조).

2) 텃밭 생산물의 소비 방법

텃밭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집단 간 텃밭 생산물의 소비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이용자 인식 조사 후 무응답으로 나타난 기타 변수를 제거하고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05$)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 텃밭 생산물 소비 방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개인 소비 및 일정 사회에 나누어야 한다는 응답이 47.2%(10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작 참여 집단의 경우, 가정 내 개인이 소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62.8%(7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 소비 및 일정 사회 나눔이 36.3%(41명)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텃밭 생산물을 개인의 사유로 생각하지만 텃밭 내 경작물을 모아 김장을 하여 불우이웃을 돕는 등 사회 나눔 활동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작 비참여 집단의 경우, 개인이 소비하되 일정 비율은 사회에 나누어야 한다는 응답이 57.8%(6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공원 내 텃밭 생산물은 공공공간에서의 생산물이기에 개인의 소비보다는 공공의 이익으로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소비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공원 내 텃밭 생산물의 율

Table 11. Production consumption method along with cultivation participation

Classification	Participant	Non-participant	Total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Individual consumption within the family	71(62.8)	29(25.0)	100(43.6)
Individual sale	0(0.0)	10(8.6)	10(4.4)
Individual consumption and regular social share	41(36.3)	67(57.8)	108(47.2)
Use of park management cost through sale	1(0.9)	10(8.6)	11(4.8)
Total	113(100.0)	116(100.0)	229(100.0)
Chi-square test	Value	df	Sig.
Pearson chi-square	41.231	3	0.000

바른 소비 방법은 개인의 소비와 함께 일정 부분 사회적 나눔을 통하여 공익적 가치를 향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개인마다 수확물의 일정 비율을 기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생산물 나눔은 개인의 자유(Yoo, 2014)이기에 경작자의 사회적 인식 및 나눔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Table 11 참조).

3) 텃밭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도시공원 내 텃밭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텃밭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텃밭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집단 간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 경작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 모두 텃밭의 공공적 가치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49.6%(56명), 57.9%(6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텃밭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해서 공원 이용자들이 텃밭의 공공적 가치를 인지하고 이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경작 참여 집단의 경우, 텃밭에서의 규제 행위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7.7%(20명)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 인터뷰 시, 경작 참여자가 경작물 도난과 텃밭 관리 부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 것과 같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작 비참여 집단의 경우, 이용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5.5%(18명)로 나타났지만 참여 집단은 5.3%(6명)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통해 경작 비참여자들이 경작 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텃밭 이용 프로그램의 부족함을 느끼

Table 12. Essential items for sustainable management

Classification	Participant	Non-participant	Total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Institutionalization of regulation deeds in the community garden in the park	20(17.7)	17(14.6)	37(16.2)
Sharing awareness on public value of community garden among park users	56(49.6)	67(57.9)	123(53.8)
Diversification of use program	6(5.3)	18(15.5)	24(10.5)
Securement of cultivation space	17(15.0)	8(6.9)	25(10.9)
Securement of management manpower	8(7.1)	4(3.4)	12(5.2)
Other	6(5.3)	2(1.7)	8(3.4)
Total	113(100.0)	116(100.0)	229(100.0)
Chi-square test	Value	df	Sig.
Pearson chi-square	13.763	5	0.017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텃밭의 지속가능한 공공성 증진을 위해서는 텃밭에 방문하는 모든 이용자가 수확 체험, 나눔 행사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로 소통하며 텃밭의 공공적인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경작 참여자들에게 텃밭 경작에 따른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인식 제고 및 개선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Table 12 참조).

V. 결론

본 연구는 도시공원 내 텃밭 경작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공원 내 텃밭에 관한 인식과 공원 내 텃밭 공공성 평가, 공원 내 텃밭 공공성 증진방안에 관한 인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공원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원 내 텃밭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도시공원 내 텃밭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작 참여 집단은 텃밭을 공공의 공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비참여 집단은 텃밭으로 인한 공원 사유화를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공원 내 텃밭이 공원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공원 본래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원 이용자들에게 텃밭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텃밭 참여자들의 활동을 개인적 경작 활동을 넘어 공적인 활동과 연계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공원 내 텃밭 공공성 평가 결과, 공원 이용자는 텃밭의 공공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심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성, 상호교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인식 차이 결과, 각 항목에 대하여 비참여 집단의 점수가 참여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작 비참여 집단이 공원 공공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텃밭의 공적 활용을 위한 텃밭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원 내 텃밭 공공성 증진 방안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분양 방법과 생산물 소비 방법에 대하여 경작 참여자들이 공원 내 텃밭을 개인의 가치를 위한 공간으로, 경작 비참여 집단은 공공의 가치로써 인식하고 있었다. 텃밭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경작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 모두 공원 이용자들 사이에 텃밭의 공공적 가치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공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도시공원 내 텃밭 조성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내 텃밭 조성에 대한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텃밭이 조성된 후 이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기반으로 한 실증적 연구로써 공원 내 텃밭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공원 공공성 인식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공원 내 텃밭을 조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공원의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공원 내 텃밭의 공공성의 평가기준을 참여 여부로 한정하여 다양한 계층에 따른 인식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에 향후 인구사회적인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구체적인 공공성 평가 및 증진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References

1. Act on Development and Support of Urban Agriculture.
2. Eun, J. S.(2013) A Study on the Public Utilization for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of Individual Buildings in Urban Commercial Streets. Master Degree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3. Heo, J. N. and T. G. Kim(2012) Valuation and preference of urban agriculture park using choice experiment. Korea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10: 375-384.
4. Jang, H. R.(2005) A Study on the Effect of Factors on the Use of Private-owned Pocket Parks. Master Degree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5. Kang, K. N., J. K. Lee, K. H. Kim, and M. H. Lee(2007) Revitalization planning of urban farming based on vegetable garden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6(1): 167-176.
6. Kim, M. N.(2006) A Study of the Management Subject and the Park User's Mind for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Seoul Forest Park Management. Master Degree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7. Kim, S. E.(2013) A Comparative Study on Park Marketing Strategies by Operating Agencies: The Case of Seoul Forest, World Cup Park and Olympic Park. Master Degree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8. Kim, S. H., J. G. Hyun, J. H. Lee, J. S. Kim, G. H. Lee, and H. M. Yang(2008) Public, Mimesis.
9. Kim, Y. K.(2014) Analysis of Current Operational State of Vegetable Gardens by Elementary School and Plans for Activation. Master Degree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0. Korea Planners Association(2013) Urban Agriculture Present and New Experiment.
11. Land & Housing Institute(2011) Planning Strategies for Urban Farming in the Development Project Areas.
12. Lee, C. H.(2012) Comparative Study on Urban Agriculture Operating Agents: Construction and Operating System with a Focus on Community Allotment. Master Degree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3. Lee, H. S.(2009) A study on off-leash dog runs in urban parks as public facilities : Case studies of dog runs in urban parks in Tokyo.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n 10(2): 139-152.
14. Lee, J. B.(201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Open Space. Master Degree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15. Lee, J. W.(2003) A Study on Acquisition of the Publicity in Korean City through Kevin Lynch's Theory : Focused on Itaewon. Master Degree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16. Lee, W. S., S. E. Won, S. Y. Lee, and M. H. Seo(2011) Finding the vacant space and community garden formation model for making urban vegetable garden. Gyeonggi Agriculture Research & Extension Service.

17. Park, H.(2012) A study on the implications from the modern large park planning and the featur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3(3): 63-74.
18. Park, T. H. and I. S. Lee(2012) Effects of the urban farm program on the participants'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0(5): 119-128.
19.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2010) Urban Agriculture Condition and Perception Survey Result.
20. Seoul Research Institute(2012) Revitalization Planning of Urban Agriculture in Seoul.
21. Son, E. H.(2012) Shared space and community.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32: 61-79.
22. Son, Y. H.(2014) The current status of use and the difference of awareness by user groups in the Cheongryongsan Vegetable Garden Park.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0(2): 71-80.
23.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2003)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Seoul: Munundang.
24. Yoo, S. B.(2014) A Study on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Urban Community Garden Focused on Urban Publicness. Master Degree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5. Yoon, S. M.(2013) Study on Making the Agricultural Ecological Park Using the Extant Farmland in the City and the Value Cognition. Master Degree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26. <http://www.segye.com>

Received : 1 December, 2014

Revised : 6 January, 2015 (1st)

3 February, 2015 (2nd)

Accepted : 3 February, 2015

3인의명 심사필